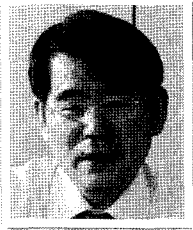


# 농산업발전 위한 학문의 재창조 필요

농업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공업변화에 비해 느린 듯 보인다. 그러나 한 알의 씨앗이 자라는 시간은 플라스틱 세숫대야에 비교 될 수는 없다. 농업의 현실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즉시 충족해 줄만큼의 탄력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의 지혜도 필요하다.



조은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본부장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우리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동방의 등불로 깨어날 것을 기원하였다. 물론 그 당시는 일본 강점기였으며, 우리나라의 3.1운동은 인

도의 비폭력 무저항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 또한 수천년에 이르는 우리만의 독특하고 조용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근대의 이런 격변기를 겪으면서 매우 빠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근대 이전까지 우리의 농업은 가족농을 위주로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농업의 구조는 근대사회의 특징인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의 영

향으로 점차 대량생산을 위한 기계화가 진행되었다. 산업의 발달은 농업의 기계화만을 촉진한 것은 아니다. 농약과 비료를 농업에 이용하면서 농업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농업의 구조는 대량투입을 통한 대량생산의 구조로 변화하였다.

우리 민족의 긴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이러한 농업의 대량생산은 오랜 굶주림을 멈추고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다양한 농약을 이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고, 노동력을 줄이게 되었고 비료를 사용하면서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급속히 늘었다. 또한 농기계의 도입은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획기적인 절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잉여 노동력은 전통적인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던 우리의 산업구조를 공업화의 길로 인도하는 전인자 역할을 하였다. 공업화 일변도의 산업발전은 농도

를 밀어내고 공장을 세우는 이른바 굴뚝산업화였다. 다른 나라와의 GNP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며 최고의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농업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단순한 화폐의 가치로만 계산한 근시안적인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물 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굶주림은 그리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어린시절 미국의 원조로 받아온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을 점심시간에 배급으로 받을 때 새하얀 쌀밥은 명절이나 제사에만 구경하는 매우 귀한 음식이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쌀을 식물생약의 한 종류로 분류하여 '갱미' 라고 부르고 있다.

가난을 벗어나는 일과 굶주림을 면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이던 시절 우리는 이른바 '통일벼' 를 만들었다. 그것은 농업의 진보를 위한 하나의 시작이었다. 지게로 쌀 두 가마를 겨우 지고 내려오던 논둑길에 리어카와 경운기가 들어왔고 모심기를 할 때 못줄을 잡은 주인의 고함소리와 함께 호흡을 맞추던 수십 명의 일꾼들은 단 두 명만 있어도 넉넉한 모심기가 가능한 기계화영농으로 바뀌었다.

한여름 거머리 붙은 다리로 등짝이 휘어지도록 논을 기어 다니던 농부의 수고로움은 어느새 장화하나 달랑 신고 논둑에서 던져 넣는 동전크기의 제초제가 대신해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하던 시절을 뒤로하고 맛을

위해 음식을 음미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우리가 이제껏 음식을 선택하여 오던 영양가와 맛이라는 기준이 이제는 건강과 기능성이라는 기준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의 친환경농산물 코너는 일반 농산물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른바 참살이(웰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다.

### 농산물 안전 제일요소- 새로운 기회

몇 년 전까지는 생소하던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농업의 중심어가 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농업의 생산성에 크게 기여하며 농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오던 농약은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이 혐오하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국민들의 이런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지경이 되었다. 물론 국민들에게 농약이 가지는 유익성과 역할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약에 대한 지나친 불신감과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의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

몇 년 전 유명한 방송사의 TV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나 자신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을 시청하게 되었다. 우리가 등산을 갔을 때 과일껍질을 산에 버려두게 되면 곰이나 노루 등의 야생동물들이 먹게 되고

과일의 껍질에 다량 존재하는 농약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꼭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전국으로 방송되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유명한 공중파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방송의 제작자인 PD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농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단 한번의 자문만 구하고 제작을 했어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제작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약에 대한 불신감과 오해에 쌓여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수긍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큰 문제일 것이다.

한편,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친환경유기농자재이다. 요즘은 웰빙의 시대이다. 건강에 관한 관심의 증가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켰다. 최근의 유기농산물 인증현황은 2008년 통계기준으로 볼 때 1999년에 비하여 농가수는 8,460호로서 24배, 면적은 12,033ha로서 52배, 생산량은 114천톤으로 16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시장도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관리현황은 기존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농약과 비료 등에 비교하면 좀더 관리 및 제도가 미약하므로 안전성 관리측면에서 선진국 등과 비교하여 검토 보완해야할 것이다.

우리의 먹거리인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농식품의 주재료인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및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양질의 농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들 중에서도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농약은 농산물의 안전성의 확보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분야 보다 엄격한 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협약을 맺어 준수해야만 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대국의 규정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 학회에서는 기능성 성분의 분석, 잔류성 학문 발전, 새로운 자연 물질 발견, 식물성 농약의 지속적인 개발, 화학적 방제 뿐만 아니라 생물적, 물리적 방제의 방법 개발 등 안전성을 화두로 발전을 도모한다면 현재보다 미래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습으로 재탄생될 것이다. 미래 가장 유망한 학문과 더불어 새로운 창업의 발판이 되는 분야가 될 것이다.

각 분야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전문가 들이 연구하여 얻은 성과나 노하우를 발표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특히 다른 학회와는 달리 회원들의 구성원이 학계 및 연

## 농산업발전 위한 학문의 재창조 필요

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회원 뿐만 아니라 전문농가, 유통 전문가, 정책 결정자, 기업의 품질관리, 영업, 일반관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종합적인 정보교환으로 시너지 효과는 물론 농자재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되어진다.

### 농업 농촌, 영원한 가치창출 보고

농업에 있어 작물재배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정으로 작물을 충실하게 자라게 하는데 농자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으며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작물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은 대부분 화학물질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미생물제, 신물질추출제, 천적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자재에 대한 사업에 관심이 많은 현실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한 그 중심에 농식품이 있고 안전에 대한 관심은 상향지속적일 것이며 우리의 노력여하에 의해서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작물 보호분야의 농자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은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 투자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대학에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출근길에 핸드폰을 두고 왔다면 하루 종일 불편하게 지내야 하는 게 현대인이다. 그러나 도시락과 핸드폰 둘 중에 하나만을 가지고 출근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할까? 인간은 역사 이래로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문명을 개척하면서 그 시대에 적절한 문화를 이룩하여 왔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와 문학을 창조하고, 서로를 교감할 수 있는 많은 통신의 수단과 교통하는 방법 또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가장기본적인 문화는 의식주일 것이다. 그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행복을 유지할 수가 없다. 농업은 바로 그런 산업이며 바로 생명산업인 것이다. 그만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농업의 환경은 근대사회에서 급변하고 있다. 공업의 급진적인 변화에 비하면 농업은 느린 듯 보인다. 그러나 한 알의 씨앗이 자라는 시간은 공장에서 1초 만에 성형되어 나오는 플라스틱 세숫대야에 비교 될 수는 없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는 언론을 통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의 수요를 창출해 내지만, 농업의 현실은 그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즉시 충족해 줄만큼의 탄력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도 필요한 것이며 농업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소비자들의 지혜도 함께 필요한 것이다. Y